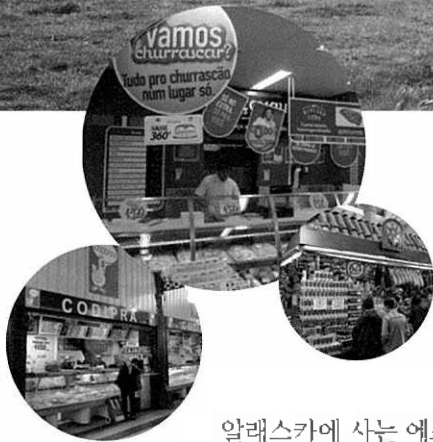


남미지역 육류 소비현황

평가사업본부 창의사업팀 차장 김성호



여름이다. 어찌면 그렇게도 기다렸던 계절임에도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이 반갑지만은 않다. 여름에는 겨울을 생각하고, 겨울에는 여름을 생각한다. 이렇게 폭염이 계속 될 때에는 누구나 다 고민한다.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근다거나 심지어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의 이글루에 며칠 머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떠났다.

칠레와 브라질이 있는 남미로... 그렇게도 바라고 바란 여행길, 막상 32시간의 비행은 피로죄를 넘어 마치 페인이 되어 가는 듯 했지만, 7월초의 칠레 산티아고는 청명하고도 맑으면서 다소 쌀쌀하게 우리를 맞아 주었다.

칠레와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참으로 많다. 외세의 침략을 받아 식민지 시대를 겪었으며 결국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군사 독재정권(칠레: 1973~1990)을 감내하기도 했다.

자동차, 공산품 등은 수입에 의존하여 중산층이 소나타를 물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지만 천연자원의 활용과 기후조건이 풍부한 농산물 생산으로 이어져 수출로 활로를 모색했다. 일상적인 생활필수품의 물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했지만 농산물은 1/3 정도 싸다고 느낄만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고 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남미지역도 우리와 비슷한 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기 외에 부산물까지 모두 섭취한다는 것이고, 악어와 피라냐까지 가리지 않고 먹는다.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글로벌 축산물 생산공급기지로 우뚝 올라선 것이 50~60년에 불과하다는 데 놀랐다. 세삼스럽게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거쳐 40~50년만에 반도체, IT, 게임, 한류 등에서



칠레 돈육생산자협회 관계자 면담. 회원수가 40개소로 칠레 55개 농가 중 72.7%를 차지. 마그로수퍼에서 저국 돈육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칠레포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수출국 요구(스펙)에 맞게 생산 중으로 공유 중도는 없으며, PABCO, SSOP, GAP, HACCP, ISO 9001, ISO 14001, 미생물, 다이옥신 통제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품질관리하고 협회 차원에서 수직통합을 도려한다고 함.

▶ 남미지역과 한국의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

구분	칠레	브라질	대한민국
쇠고기 등심(kg)	15,000원(\$ 7,990)	10,000원(17.68 REAL)	62,000원
돼지고기 목심(kg)	7,000원(\$ 3,690)	5,000원(10.10 REAL)	17,000원
닭고기(kg)	2,000원(\$ 1,070)	4,000원(8.82 REAL)	6,000원
계란(10구)	2,200원(\$ 1,124)	1,500원(3.25 REAL)	1,600원

*Tip. 화폐 원화환산(추정) = 칠레 페소(\$ × 2.02, 브라질 레알 ÷ 2

▶ 칠레 식육판매장 내 쇠고기 'V'등급 표시·판매 모습



TOTTUS 대형마트 내 정육코너



시내 정육판매점



칠레 자국
생산물
(V 표시)

브라질 수입품
(V 표시)

소포장용기
(V 표시)

글로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대단함에 고취되었다.

남미 사람들도 육류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칠레는 육류 종류에 상관없이 고른 소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브라질은 주로 닭고기와 쇠고기를 즐겨 먹는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주로 먹고 있다.



▶ 칠레 농무부 관계자 면담.

이그루수퍼 같은 대형 축산기업을 육성하는데 정부지원은 없었다고 하며, 오히려 칠레정부의 지향점인 FTA 등을 통한 통상무역 확대를 기회로 삼아 통·폐합 과정과 수직통합을 이뤄낸 결과라는 설명임.

육류를 좋아하는 만큼 유통과정 중에도 품질 관리를 부적 신경 쓰고 있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구체적인 지육 평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매단계에도 반드시 표시토록 하고 있다.

주로, 영구치 4개 이하인 젊은 소에 해당하는 'V'등급에 대해 판매하고 있다. 더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에도 자국 내 쇠고기 분류기준을 적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남미지역처럼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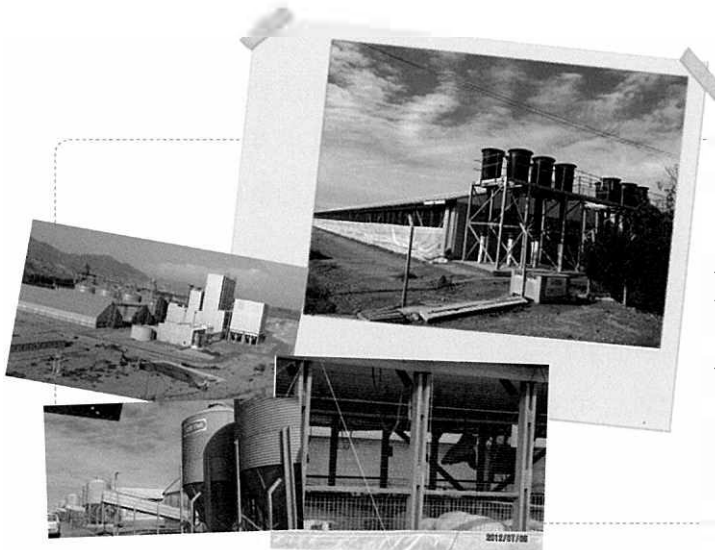
남미지역과 우리나라의 축산물 소매가격 비교

구분	주요 수출국(지역)	주요 수입국(지역)
쇠고기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북미(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미국, 아시아(일본, 한국, 베트남, 홍콩 등)
돼지고기	EU, 남미(브라질, 칠레), 북미(미국, 캐나다)	러시아, 멕시코, 아시아(일본, 한국, 홍콩 등)
닭고기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EU, 미국, 태국	EU, 멕시코, 러시아, 중국, 일본, 중동(사우디, 이라크, UAE 등)

남미지역과 한국의 축산물 1인당 소비량(kg/인) 비교

구분	칠레	브라질	대한민국
쇠고기	21.4	38.0	13.9
돼지고기	24.3	13.0	30.5
닭고기	31.3	47.4	16.4
합계	77.0	98.4	60.8

축산물을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육류의 자급자족을 지향하면서 국제적으로 품질 좋고 값싼 육류를 활용한 수급조절을 하고 국내생산 축산물은 부위별 고른 소비를 유도함과 동시에 재고품은 신속하게 수출로 수급 균형을 맞춰주며 가격은 "10년 전 가격 그대로"처럼 현재의 가격이 10년 후에도 유지될 수 있다면 이는 곧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결과가 아닐까?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해본다. **동규현**



칠레 이그로스퍼 비육돈 섹터 방문 45개 섹터(1섹터당 30개 돈사: 돈사당 1,300두)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도축장 3곳, 사료공장 2곳으로 수직통합한 경영형태로 개인회사임(매우 특이한 형태). 종돈사에서 21일령에 비육돈사로 옮겨 52일령까지 적응기간을 가진 후 180일령에 125~128kg 일 때 출하함. 칠레는 연중 기온이 20℃(7~9월 겨울 10℃, 나머지 여름 25℃)로 백신접종 프로그램이 없을 정도의 기후조건으로 전염병도 없어 약품비, 난방비 등이 절감되고 폐사돈이 거의 없다고 함. 돈육 1kg 수출 시 유통비용은 생산단계 1.2달러, 도축 패키징단계 1달러(간접비·내륙 운송비 포함: 수출 시 0.5달러 추가)를 소요해서 거래물량, 이동거리 등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통상 3달러 정도에 판매단가가 결정된다고 함.